

英식민지대 건설 印 거대철도망, 안전문제 쌓여 참사로

인도, 선로 개선·신규 열차 도입 거액 투입 현대화 추진 중 모디 “책임자 엄중 처벌”...생존자 수색 종료 후 원인규명 착수

300명 가까운 인명을 앗아간 인도 기차 충돌 참사는 대대적인 철도 현대화 사업이 추진되던 와중에 벌어진 비극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길게는 160여년의 역사를 가진 복잡하고 노후한 철도 시스템이 미처 다 개선되지 않은 상태에서, 장기간 지속돼 온 안전 문제가 다시금 대형 사고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3일(현지시간) 외신에 따르면 인도 정부는 최근 수년간 구식 철도 현대화 과정을 밟고 있었다.

올해에만 선로 개선, 혼잡 완화, 신규 열차 도입 등에 작년보다 50%가량 증가한 총 2조4천억루피(약 38조2천억원)의 기록적인 예산이 투입된 상태다.

지난달 28일에는 수도 뉴델리와 북부 우타라칸드 주도 데라둔을 오가는 준고속 전기열차 ‘반데라바트 익스프레스’ 개통식이 열렸다.

나렌드라 모디 총리는 당시 영상 연설을 통해 다양한 안전 기능을 갖춘 새 열차를 소개하며 “인도는 이 열차 속도처럼 빠르게 발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일주일 뒤인 지난 2일(현지시간) 인도 동북부 오디사에서 이런 발언이 무색하게 1천명 이상의 사상자를 낳은 열차 탈선·충돌 사고가 벌어지고 말았다.

전문가들은 인도의 철도 상황이 조금씩 개선되는 추세이기는 했으나, 여전히 곳곳에 위험 요소가 남아있다고 진단했다.

14억2천만명 인구를 거느리고 중국을 추월해 세계 1위 인구국가 위치를 눈앞에 둔 인도는 과거 영국 식민지 시대에 조성되기 시작한 세계에서 가장 광범위하고 복잡한 철도 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철도 총연장은 4만4천100km(약 6만4천km)에 이르며 여객 열차는 1만4천대, 기차



인도 동부 오디사주(州)에서 지난 2일 오후(현지시간) 대규모 열차 탈선·충돌 사고로 사망자가 300명에 육박하고 부상자 수도 1천명에 달하는 등 최악의 참사가 발생했다. /AP=연합뉴스

역은 8천개에 달한다. 북쪽 히말라야 산맥에서 남쪽 해변까지 전국 방방곡곡 퍼져있는 철도 설비는 수십년간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채 방치돼 왔다. 지난해 현지 당국 보고서에 따르면 2017-2021년 5년간 열차 관련 각종 사고 사

망자는 10만명 이상으로 집계됐다. 또 다른 보고서를 보면 이 기간 인도에서 2천17건의 철도 사고가 있었는데, 탈선

이 69%를 차지해 238명이 사망할 정도로 가장 흔한 사고 유형이었다. 선로 결함, 유지보수 문제, 구식 신호장비 및 인적 오류 등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인도 중부 키로디발 공대의 프라카시 쿠마르 센 교수는 “안전사고 수치는 개선되고 있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고 지적했다.

철도 수요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지만, 관리 인력은 제대로 훈련받지 못하거나 과도한 업무로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하는 등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실제 전날 참사가 발생한 인도 동해안 노선의 경우 인도에서 가장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석탄·석유 운송을 도맡아하며 할 정도로 가장 붐비는 구간이라고 한다.

사고 당시 신호 오류가 발생했다는 진술이 나오고 있으나 정확한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으며, 당국이 조사를 진행 중이다.

열차 충돌 현장을 찾은 모디 총리는 “이번 사고에 책임이 있는 것으로 밝혀지는 이들을 엄중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세계 각국, ‘300여명 사망’ 인도 열차 참사에도 물결

미국·중국·러시아·유럽 주요국들 애도 성명...교황·유엔 총장도

인도 동부에서 발생한 열차 충돌 참사와 관련해 세계 각국의 애도 물결이 이어졌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3일 드라우파디 무르무 인도 대통령과 나렌드라 모디 총리에게 각각 위로전을 보냈다.

중국 관영 중앙TV(CCTV)에 따르면 시 주석은 이날 발송한 위로전에서 중국 정부와 국민을 대표해 희생자와 유가족에게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마

음을 표한다고 밝히고, 부상자들의 조기 회복을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리창 국무원 총리도 모디 총리에게 위로전을 보냈다고 CCTV는 전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크렘린궁 웹사이트를 통해 “인도 열차 충돌 사고와 관련해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러시아는 참사로 가족을 잃은 이들과 슬픔을 함께하며 부상자들의 빠른 회복을 기원한다”고 밝혔다.

베단트 파텔 미국 국무부 수석부대

변인은 “지금 우리의 마음은 인도 국민들과 함께하고 있다”며 슬퍼했다.

리시 수네 영국 총리,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도 이날 애도 성명을 냈다.

이란 외무부도 성명을 통해 “인도 정부와 국민, 희생자 가족들과 슬픔을 함께한다”고 위로 메시지를 전했다.

AFP 통신에 따르면 프란치스코 교황은 “연정난 인명 피해를 가져온 열차 충돌 사고에 깊은 슬픔을 느낀다”고 말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도

스페인 뒤자리크 유엔 대변인을 통해 낸 성명에서 “열차 사고로 인한 인명 손실과 부상에 대해 매우 슬픈 마음”이라며 “희생자 가족과 인도 정부에 깊은 조의를 보내며 부상자들의 신속하고 완전한 회복을 바란다”고 밝혔다.

2일(현지시간) 오후 7시께 인도 오디샤주 주도 부바네스와르에서 약 170km 떨어진 발라소레 지역 바항가 바자르역 인근에서 열차 세 대가 잇따라 충돌해 사망자가 300명에 육박하고 부상자 수도 1천명에 달하는 등 최악의 참사가 발생했다. /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2일 콜로라도주(州) 콜로라도스프링스의 공군사관학교 졸업식에서 넘어져 부축받고 있다. /AFP=연합뉴스

바이든, 모래주머니에 발 걸려 또 ‘파당’

올해 80세로 미국 역사상 최고령 현직 대통령인 조 바이든 대통령이 공식 행사 중에 넘어졌다.

지난 2일 백악관 공동취재단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콜로라도주(州) 콜로라도스프링스의 공군사관학교에서 열린 야외 졸업식 행사에서 연설 후 생도들에게 졸업장을 수여하고 자리로 돌아가다 바닥에 있는 검은 모래주머니에 발이 걸려 넘어졌다.

주변에 있던 비밀경호국(SS) 소속

경호관들과 사관학교 관계자가 깜짝 놀라 바로 뛰어내렸고, 바이든 대통령은 3명의 부축을 받고 곧바로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어 바이든 대통령은 혼자서 자리로 돌아갔고, 도중에 뒤돌아서 검은 모래주머니를 손가락으로 가리키기도 했다. 자신을 넘어뜨린 주변이 모래주머니라는 뜻이었다.

바이든 대통령은 별다른 부상을 입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마약값 벌려고”...베트남 30대, 변전설비 훔쳐 일부지역 정전

베트남 북부에서 30대 남성이 마약값을 벌기 위해 변전 설비를 훔치는 바람에 일부 지역이 정전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4일 현지매체인 VN익스프레스에

따르면 북부 라오까이성 공안은 올해 31세인 응우옌 반 쉘옌을 최근 검거했다.

쉘옌은 지난달 라오까이 전력회사 소유의 변전소를 돌아다니면서 부품과

설비를 훔쳤다.

이로 인해 성도인 라오까이시를 비롯해 여러 곳에서 반복적으로 정전이 발생해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연합뉴스

또 지역 내 생산 시설들도 가동에 차질을 빚는 등 피해를 입었다.

그는 공안에서 “마약 구입비와 다른 여러 경비가 필요했다”고 진술했다.

공안은 쉘옌의 범행으로 인해 공공 및 민간 부문에서 심각한 피해가 발생했다고 보고 엄중히 처벌하겠다고 입장이다. /연합뉴스

방수제 · 바닥재 · 환화제 · 천연 황토 코팅제 건물 보수제 전문 생산업체

아직까지 방수로 고민하십니까? 기술이 필요없습니다.

방수! 바닥! 직접 공사하세요!

적용현장 및 시공범위

옥상, 외벽, 지하실, 공장바닥, 주차장, 흙집, 물탱크, 양어장, 수영장, 화장실 타일, 기와집, 내구성 및 평활성을 요구하는 현장, 기타 방수를 요하는 모든 건축물

생산 품목

[DK-301] 강력접착 도막 방수제 / 드림탄²
 [DK-303] 상도코팅방수제(녹색, 회색)셀프탄
 [DK-305] 무색침투도막방수제 / 드림데칼³
 [DK-307] 균열 보수제 / 다막스
 [DK-306] 수용성 투명 방수제 / 탑코팅
 [DK-308] 천연황토코팅제 / 황토리
 [DK-5000] 광택증진 & 오염방지코팅제 / 오염스톱

특징

- 빗물은 막고 습기는 내보낸다
- 기술이 필요없다
- 숨을 쉬기 때문에 들뜨지 않는다
- 경제적이다
- 무독성 무기질 친환경 방수제다
- 습윤상태에서도 할 수 있다
- 미끄럼, 방지기능을 한다
- 욕실 및 화장실 타일을 뜯지 않고도 할 수 있다
- 특히 인증 신기술 공법이다
- 소비자가 인정했다

※전화 문의시 방수·바닥재 관련 책자를 보내 드립니다. (제품 구입시 시외 지역은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유사품에 주의하세요

시중에 검증받지 않은 방수제품들이 난무하여 소비자들을 현혹하여 판매 및 시공하는 피해사례가 있다고 있습니다. 드림케미칼 코리아는 특허 인증 품질 보증업체입니다.

특허청

DRREAM

DRREAM

자매품 바르는 황토벽지 천연황토코팅제 DK-308 황토리

환경을 생각하는 기업

드림케미칼코리아
DREAM CHEMICAL KOREA

전국 대리점 및 판매점 모집(무담보, 무보증)
문의 : 080-362-7788
www.dreamchemicalkorea.com